

투데이 칼럼

말 아끼기와 잘못된 언어습관

어떤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조직에 처음 뿌리를 내리려 한다면 가장 먼저 말을 아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든 말이 있는가 하면 '세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평소에 어떻게 하나에 따라 작가는 일의 성패가 크게는 일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조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말해야만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직에서 우선 말을 아껴도 본전은 건질 수 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조직내에서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나 말수가 적은 것과 말을 해야 할 때도 안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말을 아끼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는 것이다.

2세기는 자기PR시대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입을 열어 돋보이게 해야 된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진지한 내용, 질문을 많이 던지고 질문을 통해 대화의 질도 높이고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 내야 한다.

첫째, 상습적으로 고민거리를 말하고 다닌다. 주어진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 누구나 고민은 한다.

둘째, 상습적으로 고민거리를 말하고 다닌다. 주어진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 누구나 고민은 한다. 하지만 고민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뱉하지 말라. 고민이 되면 안되든 어쩌면 당신이 풀어야 할 일이다. 특히 당신이 상습적으로 고민을 풀어놓은 대상이 당신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더욱 입을 다물어야 한다. 당신의 잦은 푸념은 결국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돼'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격이 되고 만다.

셋째, 모르는 것은 일단 묻고 본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질문고 넘어가야 한다. 잘 모르는데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도 '무시당할까봐', '속스러워서' 등의 이유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더 큰 실수를 부를 수 있다.

넷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 '왜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서지 않는다면, 남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하거나 맞장구치지 마라. 일이 잘 되면 상으로 주어지는 몫은 의견을 낸 당

사자에게만 돌아가지만 반대로 일이 안 풀리면(당사자 혹은 함께한 팀원으로부터) 변명이나 일방의 대상에 당신까지 포함 될 수 있다.

다섯째, '죄송해요'를 남용한다. '죄송합니다. 몰랐는데요' 라는 말을 자주 쓰는가? 죄송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다. 일처리 과정에서 만약 정말 당신의 잘못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애매한 말 대신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부터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라' 습관적인 '죄송'은 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조직 내에서 가장 골짜한 상황은 '공식화되지 않은 책임'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당신은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조직 역시 당신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일곱째, 부정적 의견을 피뎌는다. 조직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곳이다. 당연히 업무상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섯째,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조직 내에서 가장 골짜한 상황은 '공식화되지 않은 책임'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당신은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조직 역시 당신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기고문

길고 길었던 여제비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선언과 함께 종료된 후 3년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민족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특히나, 이번 추석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되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에 가는 우리는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갈 것이다. 올해에는 쪽염과 고물가로 인해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추석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82건이었으며 주택화재가 465건(36.3%)으로 나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타났다. 위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명절연휴 기간 중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바, 이러한 주택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뜻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방지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가 일어났음을 알려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김 윤 철 무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이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또는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관리할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된다. 소화기의 내용연한은 10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사용연한도 10년으로 건전지 수명이 다하면 배터리를 교체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손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값도 비싸지 않아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부담없이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사설

트럼프 머그샷 마케팅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mugshot)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머그샷(mugshot)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급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한다.

트럼프는 머그샷을 바이든 정부의 선거 개입 및 정치 탄압의 결과물로 포장했다. 이를 통해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독려하고 티셔츠 등 상품 판매에 나섰다. 트위터 계정에도 머그샷을 올리고 "선거 개입,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글과 함께 트럼프 캠프 홈페이지 주소록을 적어 홍보에 나섰다.

트럼프는 머그샷이 공개되자 몇 분 뒤에 '속보: 머그샷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홈페이지를 통해 티셔츠, 머그컵, 차량 스티커 등 머그샷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가 "굴욕 사진"인 머그샷을 인생 사진'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이

유가 있다. 기소 때마다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트럼프 책임론'이 지목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는 올해 성 추분 압박, 기밀 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4차례나 기소됐다.

그러나 당내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는 상태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 자금 모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세계에서 머그샷은 트럼프 정치 인생의 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 불참했는데도 여전히 큰 격차로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앞섰다.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과제

최근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창립된 '전주평화연합'의 창립 18주년 기념식도 함께 개최됐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단체다. 1987년 창립한 이래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다.

통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범국민 통일 교육과 해외 동포 및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창설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실천을 수반한 균형 있는 통일관을 제시했다.

국민연합은 50개국 재외 동포와 100여 개 주요 통일운동 단체가 참여한 '2014 통일기원한민족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했다.

2015년에는 통일부, 행정자치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120

개국이 한반도 평화통일 피스로드 종주를 마쳤다.

송광석 회장은 이임사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요, 미래의 희망으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 당대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조 의장은 취임사에서 "40년 동안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독보적인 통일 NGO단체의 책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신생전 시대에 돌입했다.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창설자의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앞으로도 기존 단체들과 더불어 국민 대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초국가, 초종교, 초문화적인 활동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송광석 회장에 이어 황선조 의장도 창설자의 위대한 민족통일 운동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